

금융감독원 -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안내

1. 배경

2009년 상법은 2차례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선임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영의 정보기술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자적 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제 등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 한편, 상장회사는 주식 등의 발행예정한도나 발행기준에 대한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여 상장회사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사·감사·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신규제도 도입과 연중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2. 상장회사 주총시 주요 유의사항

1) 사전 통지·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 선임

- 상장회사가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총 소집 통지시 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약력·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함께 통지·공고하고, 사전 통지·공고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 선임

※ 주총장에서 긴급발의로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감사 선임 불가

2) 일괄선출 방식에 의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이 주총에 있으며,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선출(일괄선출방식)

※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분리선출방식 이용 불가

3)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

- 종래 회사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를 하였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 가능

※ 전자적 방법이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사전에 정관 변경과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는 경우 2010.5.29부터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4) 전자투표제와 전자주주명부

-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제 도입

※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이용 가능하나,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사전에 정관 변경 필요. 양 제도는 2010.5.29부터 이용 가능

5)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정관 규정 정비

- 회사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이 가능하므로 연중 증자계획에 비추어 필요한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보를 위해 정관 사전 정비

-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므로,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특정 제3자에 대한 배정 등 필요한 유형의 증자별로 한도, 목적 및 대상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 주주들의 예측가능성과 제3자 배정의 구체적 합리성 확보

3.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을 금감원과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는 한편, 주총 관련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주총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원활한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주총 관련 법규 해설」을 함께 게재할 예정임

금융감독원 - 금강원 홈페이지 '증권회사 종합공시' 등 개선

1. 주요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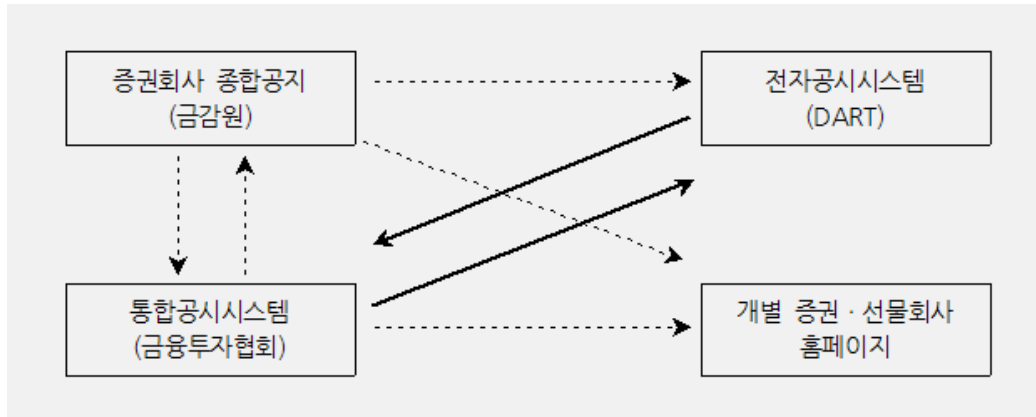
가. 공시채널 간 연결체제 확대 구축

- 현재 증권·선물회사의 공시정보는 금감원의 ‘증권회사 종합공시’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투자협회의 ‘통

합공시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만 링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바, 공시 사이트 간 연결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① '증권회사 종합공시'(금감원 홈페이지) 확대 : 현재 여타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 금융투자협회의 '통합공시시스템' 및 개별 증권·선물회사의 '경영공시 사이트'에 연결 링크를 설치

<증권·선물회사 공시채널별 연결>



* 실선 : 기 링크, 점선 : 신규 링크

② '통합공시시스템'(금융투자협회) 확대 :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결되어 있으나, 금감원의 '증권회사 종합공시' 및 개별 증권·선물회사의 '경영공시 사이트'에 추가 연결 링크를 설치

나. '증권회사 종합공시' 대상 회사 확대

- 기능별 규율 체제에 부합하도록 공시 대상회사(현재 증권회사)에 선물회사를 추가

다. 관련 사이트 간 중복 공시항목 조정

- 공시 사이트간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되, 공시항목 자체는 존치시켜, 해당 공시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링크함으로써 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시시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시행시기

금감원 '증권회사 종합공시' 개선안은 '10.2월('09.12월분)부터 적용하고, 공시채널간 링크는 '10.1분기 중 완료 예정임

3.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경우 증권·선물회사 공시정보를 One-stop으로 비교·이용할 수 있으며, 금감원의 경우 중복공시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감독원 - 상장법인 외부감사인에 불법 자산거래 유형등 감시참고자료 제공

1. 배경

12월말 결산을 앞두고 부실·한계기업의 상장폐지회피·횡령 목적의 변칙적 자산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시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불법사례를 상장법인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 감사 참고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금감원은 허위매출, 부실자산의 과대평가, 가장납입에 의한 자기자본 확충 등 상장폐지회피·횡령 목적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불법유형을 회계법인에 송부하여 외부감사인의 중점점검 등 업무협조 요청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부실·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향후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하여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통보·과징금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상장법인 외부감사시 변칙적 자산거래 관련 참고자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 상장법인 제3자배정 관련 정관 실태 및 개선 방안

1. 배경

상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의거 제3자에게 신주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장법인 표준정관 정비*, 주요사항보고서 기재확충**,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및 제3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신주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권고(07.12.)

** 제3자의 명세, 선정 경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07.12.)

*** 제3자배정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시 발행신주를 6개월간 보호예수(07.12.)

최근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무효 소송,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상장법인 정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 및 향후 공시심사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2. 실태점검 결과

주권상장법인 1,626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642사(40%)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은 566사(35%)였으며,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76사(5%)가 있었다. 또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사(15%)에 불과하여 '07.12월 개정이후 표준정관의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09.10월 현재 주권상장법인 1,782사 중 156사(제3자배정 정관 미도입 91사, 투자회사 57사, 외국법인 8사) 제외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구분	한도없음	100% 초과	50~100%	20~50%	20% 이하	계
유가	148 (24%)	43 (7%)	41 (6%)	323 (51%)	73 (12%)	628 (100%)
코스닥	418 (42%)	33 (3%)	35 (4%)	338 (34%)	174 (17%)	998 (100%)
전체	566 (35%)	76 (5%)	76 (5%)	661 (40%)	247 (15%)	1,626 (100%)

특히, '09년중 신규상장기업(IPO) 60사*의 경우에도 신주발행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은 25사(42%)에 불과하였으며, 11사(18%)는 동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었다.

* '09년중 신규상장사 69사중 9사(투자회사 3사, 외국법인 6사) 제외

구분	한도없음	100% 초과	50~100%	20~50%	20% 이하	계
IPO	11 (18%)	-	-	24 (40%)	25 (42%)	60 (100%)

3. 향후 대응방안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정관개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여 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에 안내하는 동시에 안내공문을 송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강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심사 강화하여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하고, 신규상장기업(IPO)의 증권신고서 심사시 동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관련 표준정관의 도입여부를 포함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 증액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자 유의사항)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상장법인 제3자배정 관련 정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배경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금융회사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제재사유 등을 보다 자세히 적시하여 제재 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준법 수준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의 제재 사유 등을 연구하여,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준법 역량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명과 지적제목 및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히 공개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 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 공개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법원의 판례, 공정위 의결서와 같이 위규 사실, 적용 법규, 제재 양정 등을 상세히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거래고객의 영업상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개인 제재대상자 및 거래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재대상자 직·성명, 거래고객명 등)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2. 주요내용

(공개 범위)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는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예정이고, 또한 제재공개 효과 높일 수 있도록 과거(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행위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 중심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방법)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재 정보 메뉴”란을 신설하여 원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검사결과 제재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다.

* “제재 정보 메뉴”상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공개대상 제재범위>

구분	공개대상		제외대상
기관제재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주의
	○기관경고		
임직원 제재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주의
	○무내경고(감봉)	○주의적 경고(견책)	
금전적 제재	○과징금	○과태료	

3.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금번 제재 내용 공개 확대 방안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예상되어, 금융소비자는 준법 수준이 열악한 금융회사를 거래 이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금융회사는 공개된 제재 내용을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교육 등에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준법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제재공개 전산시스템 등 공개 인프라 구축,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2.10일 예상) 직후 제재공개를 개시토록 하여 제재공개 전산시스템은 1분기내 구축을 추진하되, 우선,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임시게시판을 개설하여 공개 개시 및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제재공개 절차, 예외적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s.or.kr/www.fs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금융위원회(제2차, 2010.1.27.)는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 기준서”라 함)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2009.12.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본격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 결합재무제표제도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도입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재무제표 기준서에 반영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회계기준 차이*를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연도에는 비교표시되는 직전년도 결합재무제표를 K-IFRS에 의거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와 현행회계기준(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회계기준상의 차이

※ <참고> 외감법 시행령 개정('09.12.31)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제도 개정 사항>

1)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외감법시행령 제1조의4③)

- K-IFRS 적용으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달라져서 기존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K-IFRS을 도입한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은 기업집단은 지속 면제토록 하였다.

* 현행 기준하에서 30%초과 최다출자자는 종속회사로 포함되나, K-IFRS에서는 종속회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의 합계가 결합재무제표 자산총액의 80%에 미달될 가능성이 존재

2) K-IFRS 도입기업의 결합대상 범위 조정(외감법시행령 제1조의4②)

- K-IFRS 도입기업은 K-IFRS 연결기준과 동일하게 소규모 회사 등*을 결합대상 계열회사에 포함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가능

* 외감법령 상 비외감대상회사로서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청산·합병 진행중인 회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사 등은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결합재무제표 제도, 작성 현황 및 현행회계기준과 K-IFRS의 주요 차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s.or.kr/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 제정(2009.11.2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가능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 •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 적용시 회계 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회계추정* 일치를 면제). 특히 K-IFRS 적용 종속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정책 일치'도 면제 *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 대손충당금 설정율 등 •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시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하여 일반적인 제거기준*에 따라 판단 *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도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전환사채, 교환사채, ELS(주가연계증권) 등 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

일반기준 적용시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s.or.kr/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행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2010년도 KRX 경영성과 및 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0. 2. 22(월) 이사장, 임원 및 집행간부 이상 전(全)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경영성과 및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영성과 및 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과 업무혁신을 적극 실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이며 동 계약은 개인별 성과급 결정 및 임원 인사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계약체결 내용>

1. 경영성과계약

- 계약내용 :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역점사업
- 계약대상 : 이사장↔각 사업본부장↔사업본부별 본부장보
- *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경영성과 계약 체결

2. 직무청렴계약

- 계약내용 : 직무의 공정수행 및 청렴의무사항 준수
- 계약대상 : 선임비상임이사↔이사장↔각 사업본부장

3. 체결식

- 일시 : '10. 2. 22(월) 09:30
- 장소 :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18층 회의실

한국거래소 - 2009년도 12월 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유가증권시장)

1. 조사 개요

한국거래소는 2010. 2. 18 현재 2009년 결산 현금배당결정을 공시한 249개사 12월 결산 법인 중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220개사를 대상으로 현금배당 증감 추이 비교하였다.

* 배당금 (중간배당 포함),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임 (배당금총액은 우선주 포함)

** '09년 현금배당 항목별 상위사 현황은 24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 집계

2. 조사 결과

2010. 2. 18 현재 결정된 현금배당총액은 8조 6,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 4,716억원 대비 15.34% 증가하여 평균 시가배당률은 금년도 2.14%로 전년 동기 2.77% 대비 0.63%p 감소, 외국인 배당금총액은 3조 1,77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731억원 대비 14.59% 증가하였다. 업종별 1사당 평균배당금총액 상위는 통신업(4,188억원), 금융업(1,596억원), 전기전자(920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0. 2. 18 현재 12월 결산법인 2009년도 배당금 총액 1위는 삼성전자(1조 1,854억원), 2위는 SK텔레콤(6,800억원), 3위는 포스코(6,156억원) 이었고, 외국인배당 1위는 삼성전자(5,622억원), 2위는 SK텔레콤(3,682억원), 3위는 포스코(3,49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연간배당총액 현황>

(단위 : 억원, %)

업종	2009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평균 배당금 증감률
	배당금총액	평균 배당금	배당금총액	평균 배당금	
통신업	12,564	4,188	9,637	3,212	30.37
금융업	9,574	1,596	4,661	777	105.39
전기전자	18,403	920	11,568	578	59.08
운수장비	8,377	524	7,395	462	13.28
철강금속	7,594	475	9,361	585	-18.87
의료정밀	371	371	307	307	21.02
서비스업	7,209	257	5,981	214	20.53
화학	10,181	248	14,079	343	-27.68
건설업	2,017	224	2,190	243	-7.87
유통업	2,279	163	2,092	149	8.91

운수창고업	479	120	976	244	-50.9
음식료품	1,185	119	661	66	79.28
전기가스업	483	69	465	66	3.9
기계	669	61	625	57	7.11
종이목재	130	43	89	30	46.58
의약품	468	39	404	34	16.04
섬유의복	297	33	266	30	11.91
비금속광물	149	30	171	34	-12.59

2009년도 12월 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2009년도 12월 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코스닥시장)

1. 조사개요

한국거래소는 2010. 2. 18(목) 현재 2009년 결산 현금배당결정을 공시한 223개사 12월 결산 코스닥법인 중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154개사를 대상으로 현금배당 증감 추이 비교하였다.

* 배당금(중간배당 포함), 시가배당물은 보통주 기준(배당금총액은 우선주 포함)

** 2009년 현금배당 항목별 상위사 현황은 223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 집계

2. 조사 결과

2010. 2. 18 현재 결정된 현금 배당총액은 약 2,930억원으로 전년 2,709억원 대비 8.16% 증가하여 시가배당률은 2009년 평균 2.35%로 전년도 평균 3.36% 대비 1.01%p 하락, 외국인 배당금총액은 2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45% 감소하였고, 업종별 1사당 평균배당금총액 상위는 방송서비스(102억원), 유통(64억원), 음식료·담배(28억원) 등의 순이었다.

2010. 2. 18 기준 12월 결산법인 2009년도 배당금총액 1위는 동서(308억원), 2위는 GS홈쇼핑(191억원), 3위는 파라다이스(155억원) 이었고, 외국인 배당금총액 1위는 GS홈쇼핑(79억원), 2위는 동서(18억원) 이었다.

<업종별 연간배당총액 현황>

(단위 : 사, 억원)

업종	회사수	2009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증감률 (평균배당금총액)
		평균배당금 총액	배당금 총액	평균배당금 총액	배당금 총액	
방송서비스	2	102	204	101	202	0.99%
유통	6	64	382	51	306	248.7%
음식료·담배	8	28	228	26	209	8.86%
소프트웨어	4	26	103	22	87	19.16%
기타서비스	6	20	123	25	150	-17.99%
일반전기전자	6	18	107	15	89	20.54%
통신서비스	2	16	31	6	12	170.08%
IT부품	25	16	389	16	395	-1.57%
기타 제조	3	15	45	11	32	42.74%
제약	12	15	179	11	137	30.14%
운송장비·부품	5	13	67	10	48	41.17%
컴퓨터서비스	6	12	72	10	62	16.83%
정보기기	5	12	60	11	57	5.47%
금속	9	12	105	11	98	7.00%

반도체	7	11	79	11	75	5.74%
기계·장비	14	11	151	15	217	-30.34%
건설	4	11	43	9	37	14.68%
의료·정밀기기	5	9	45	6	32	41.96%
디지털컨텐츠	2	4	9	4	9	2.30%

2009년도 12월 결산법인 현금매당결정 공시현황(코스닥시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최초 상장

한국거래소는 코스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하여 2009년 12월 21일 신주인수권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 개설이후 (주)인프라웨어가 코스닥시장상장기업 최초로 2010. 2. 12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할 예정이다.

- 투자자는 상장기간('10.2.12~2.19 5거래일)동안 증권을 통하여 거래 가능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신한금융지주회사, 대우자동차판매(주), KB금융지주, 동부제철(주) 등 4개사가 상장한 사례가 있음

※ 거래시간 : 정규시장(09:00~15:00), 매매수량단위 : 1중서, 가격제한폭 : 없음,

매매체결방법 : 주식시장과 동일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 현황>

회사명	상장증권수 (중서)	발행가격 (원)	1중서당 인수 가능 주식수	상장기간	목적주권 청약기간
(주)인프라웨어	1,900,793	22,400	보통주 1주	'10.2.12~2.19 (5거래일간)	'10.3.3~3.4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인프라웨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통해 투자자에 다양한 투자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원 확보 및 장내시장을 통한 거래투명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최초 상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코스닥상장 외국기업 합동IR 개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IR서비스와 공동으로 1월 28일(목), 코스닥상장 외국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기업설명회 및 One-on-One 미팅을 병행하는 코스닥상장 외국기업 합동IR을 개최하였다.

- 일시 : '10. 1. 28(목), 09:30 ~ 18:00

- 장소 : KRX 신관 사옥 21층 대회의실

- 후원 :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참가기업의 상장주관사)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 현황>

구분	시간	참가기업
기업설명회	9:30 ~ 12:20	● 중국엔진집단, 중국식품포장, 네프로아이티, 차이나그레이트
One-on-One 미팅	14:00 ~ 18:00	● 중국엔진집단, 중국식품포장, 네프로아이티, 차이나그레이트, 3노드디지털

외국기업 합동IR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IR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외국기업의 IR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소 주관의 외국기업 합동 IR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애널리스트 등 정보생산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기업의 내실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보불균형 현상의 완화 및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외국기업의 합동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증권업계는 물론 투자자에게 깊이 있는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코스닥상장 외국기업 중 합동IR 참가기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2009년 증권시장 공시실적

1. 개요

‘09년 중 증권시장의 공시건수는 총 55,631건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하여,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0,056건(1사당 평균 26.5건), 코스닥시장 공시는 35,575건(1사당 평균 34.6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및 상장법인 공시부담 경감정책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가증권시장 공시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공시분류					계	1사당평균 공시건수
	수시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기타공시		
'08년	14,554	346	1,779	1,347	3,540	21,566	28.6 건
'09년	11,128	280	1,504	1,736	5,408	20,056	26.5 건
증감률	△ 23.5%	△ 19.1%	△ 15.5%	28.9%	52.8%	△ 7.0%	△ 7.5%

<코스닥시장 공시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공시분류					계	1사당평균 공시건수
	수시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기타공시		
'08년	23,508	446	1,909	2,729	9,089	37,681	36.3 건
'09년	18,132	352	1,232	3,557	12,302	35,575	34.6 건
증감률	△ 22.9%	△ 21.1%	△ 35.5%	30.3%	35.4%	△ 5.6%	△ 4.8%

공시유형별로는 양 시장 모두 수시공시(유가 △23.5%, 코스닥 △22.9%), 조회공시(유가 △19.1%, 코스닥 △21.1%), 공정공시(유가 △15.5%, 코스닥 △35.5%)는 감소한 반면, 자율공시(유가 28.9%, 코스닥 30.3%) 및 기타공시(유가 52.8%, 코스닥 35.4%)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장법인 공시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수시공시 일원화와 함께 시행('09. 2. 4)된 자율공시 범위 확대조치 등에 기인하였다.

2. 공시 유형별 실적

(수시공시) 수시공시사항의 자율공시 이관('09. 2)의 영향 등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23.5%, 22.9%씩 감소하였다.

(조회공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19.1%, 21.1%씩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가상승추세의 영향으로 시황급변 조회공시 요구는 감소한 반면, M&A 관련 사항 등 보도관련 조회공시 요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공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15.5%, 35.5%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율공시 확대 및 공정공시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계도와 그에 따른 상장법인의 인식제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공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28.9%, 30.3%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시공시사항 일부의 자율공시로의 이관·확대 및 M&A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공시 증가에 기인하였다.

(기타공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전년대비 각각 52.8%, 35.4% 증가하였고, 이는 주가 상승에 따른 개별법인의 주가급변과 관련한 투자주의 등 안내공시 및 기타 상장관련 안내공시 등의 증가에 따라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타

‘09년 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현황은 유가증권시장(29건)이 전년대비 35.6%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125건)이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는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정법인 1사당 불성실공시 건수 감소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가세 지속 경영권분쟁,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및 공급계약 관련 공시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08년	'09년	증감률(%)	'08년	'09년	증감률(%)

공시불이행	23	21	△ 8.7	50	67	34.0
공시변복	18	7	△ 61.1	46	50	8.7
공시변경	4	1	△ 75.0	13	8	△ 38.5
계	45(27社)	29(20社)	△ 35.6	109(87社)	125(99社)	14.7

2009년도 증권시장 공시실적 등의 분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김봉수 한국거래소(KRX) 신임 이사장 취임

2009. 12. 31(목) 김봉수(金鳳洙, 1953년생) 前 키움증권(주) 부회장이 한국거래소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사장 선임 경과 >

- '09. 11. 5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09. 1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장 후보로 선출
- '09. 12. 24 금융위원장 제청
- '09. 12. 30 대통령 임명
- '09. 12. 31 한국거래소 제3대 이사장 취임

김봉수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Global KRX’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하면서 임직원에게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창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문화의 정착 및 고객니즈를 파악하여 철저한 고객서비스마인드를 갖추어야하는 등의 여러 사항을 당부하였다.

또한 거래소 경영의 기본철학으로 첫째, ‘법과 원칙에 의거한 경영’, 둘째, ‘참여의 열린 경영’, 셋째, ‘실사구시의 실천경영’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임이사장은 한국거래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새로운 10년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봉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취임사 및 주요 약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1. KOSPI200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2010년 상반기 중 KRX와 EUREX 간 연계거래 개시에정)

국내의 야간시간 동안 EUREX에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가 1일인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형식적으로는 KOSPI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지만 만기가 하루이므로 시간가치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국내시장의 옵션거래와 동일한 구조인데, 선물(KOSPI200옵션)인수도의 의무가 있는 선물형태로 상장하여, EUREX의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설계된다.

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21 시행)

주권의 상장 후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2010년 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10.3월 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7 시행)

결산일 이후 자구감사보고서 제출기업에 대하여 재무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주된 영업정지 사유를 종합적 실질심사사유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종합적 실질심사사유가 2가지 늘어나게 되면서 퇴출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또한, 실질심사대상 여부 결정기간(15일)을 명시하고, 그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지체없이 해당 상장법인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코스닥시장에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09. 12. 21 시행)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 관련 유통시장 미비로 코스닥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코스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 개설하는 것이다.

2010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www.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전국경제인연합회 - 미래 녹색산업과 GE의 그린비즈니스 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 자원에너지위원회/환경위원회 공동으로 스티브플러더 GE 에코매지네이션부문 부사장(Steve Fludder, Vice President, GE ecomagination)을 2010년 2월 5일(금) 서울프라자호텔(중구 태평로) 22층 다이아몬드 홀에 초청하여 「미래 녹색산업과 GE의 그린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녹색성장전략의 교과서라 불리는 GE 에코매지네이션 전략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 세계의 저탄소 기조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다.

미래 녹색산업과 GE의 그린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 2010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은 "2010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를 주제로 2010년 1월 21일(목)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전략수립에 일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 각 부분의 2010년도 주요이슈를 점검하고 그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개최되었다.

2010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세미나 발표자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 www.ksr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증권학회 - 2010년 제1차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증권학회는 2010년 2월 20일(토) 13:30~18:00 금융투자협회빌딩 11층에서 한국증권학회 2010년 제1차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 발표회에서는 특별심포지엄 및 8개 분과에서 기업재무, 투자론, 파생상품, 금융기관 등의 주제로 총 31편의 논문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학술발표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증권학회 홈페이지 www.ik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팀